

추석휴가 알차게 보내기

기사입력 2008-09-08 13:45



[서울신문]을 여름에는 물가상승과 고유가 등의 이유로 추석휴가를 반납하거나 장기 해외 여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날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계발이나 미뤘던 일을 하겠다는 실속파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실속파들은 방학이나 추석휴가 기간을 이용해 성형 및 피부관리·시력교정이나 임플란트 같은 치과 시술 등 자신을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감쪽같이 예뻐지는 방법, 혹은 잃었던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제대로 알기 때문이다.

특히 임플란트는 인공치아를 장착시키기 위한 수술이 불가피하므로,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치과가 가깝고도 멀게 느껴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추석휴가 기간을 이용한다면 그 동안 치아 상실로 인해 제대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었거나, 얼굴 균형의 변형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사람들도 치아의 빈자리를 말끔하게 메우고 밝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은 "최근 3차원 CT촬영과 레이저의 도입으로 비교적 통증이 줄 수 있고, 시술시간과 회복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고 전한 뒤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치과 검진을 꾸준히 받으면 그만큼 임플란트의 수명이 늘어나므로, 구강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www.seoul.co.kr)> 구독신청하기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